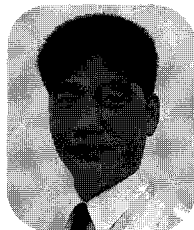


4월 지육시세는 2,55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유전자원(주) 생산팀

북한 핵과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한 세계정세로 국내 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가의 폭락과 소비시장의 침체를 지속시키면서 돈가도 2002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8개월 동안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맴돌면서 양돈 농가들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매년 4월은 첫 주에 한식과 식목일을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야외활동의 증가가 돈육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겨울동안 움츠려 있던 돼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농가는 4월에 희망을 걸고 있다.

3월부터 학교의 개학과 더불어 단체급식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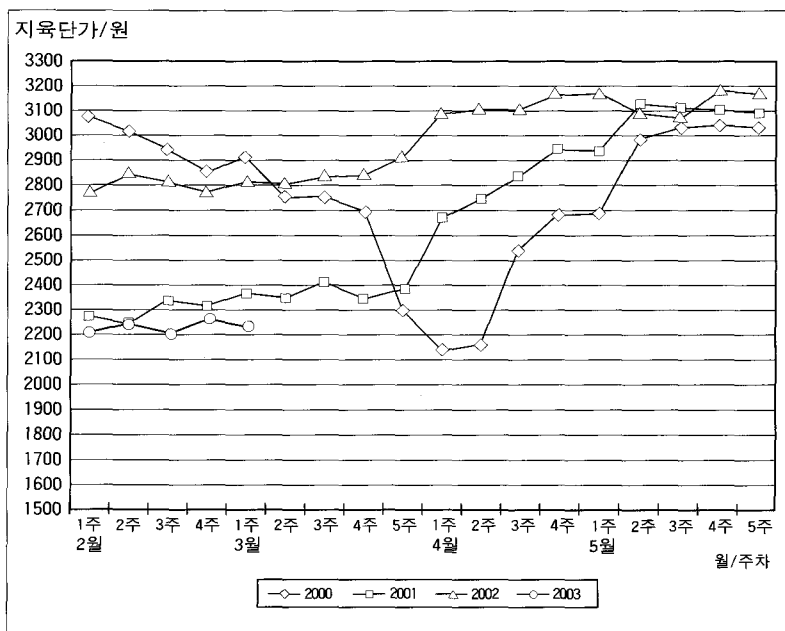
3월 첫 주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36,087두로써 전주의 32,876두 보다 약 9% 증가하였으나 가격의 하락은 전주 2,246원 보다 4원 하락한

2,240원대를 나타내고 있어 학교개학과 더불어 급식시장의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여 돈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비증가 추세는 4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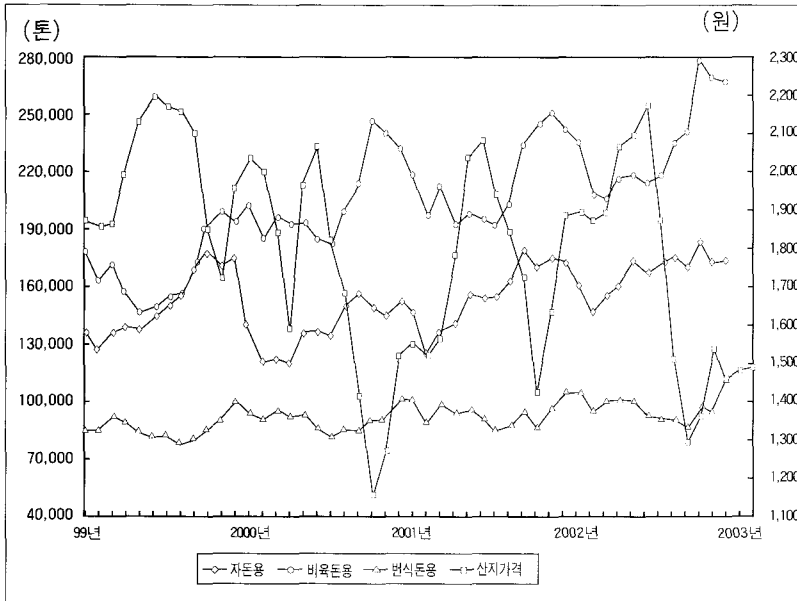
에 따라 4월의 돈육시장은 예년 보다는 낮더라도 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시장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급측면에서 바라보면 매년 4월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도축지수가 줄어드는 달이다. 이러한 공급의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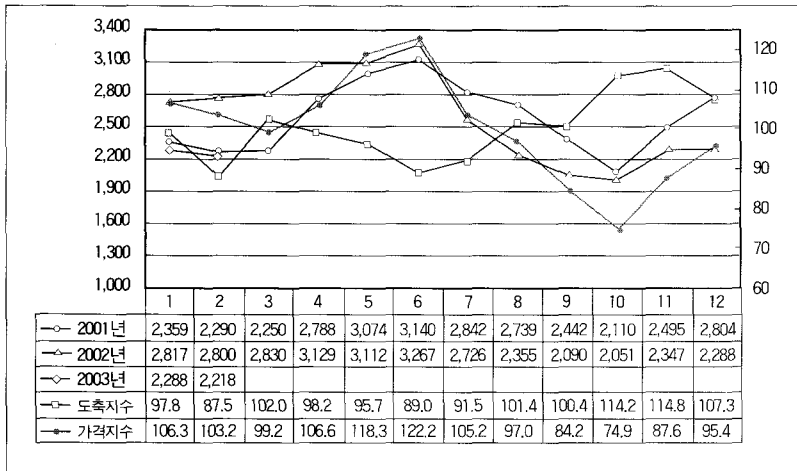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전국 주요 1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3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지표로는 10개월 전의 번식돈 사료생산량인데, 번식돈 사료생산량은 2002년도 5월의 99,841톤에서 6월 91,278톤으로 물량이 감소하여 출하두수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소비시장의 활성화와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돈육시

장은 전년부터 이월된 냉동돈육이 냉동창고에 상당량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격의 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 국내산 냉동육의 이월 물량이 3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재고물량의 증가가 대략 100% 정도 되고, 수입냉동삼겹물량 또한 전년 이월 재고량이 2만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양쪽 합한 5만톤의 돈육은 전년 수입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승하는 돼지가격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3년 4월 국내 돈육시장의 큰 흐름은 소비가 증가추세로 반전하고 돼지 공급이 감소하여 돼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산 및 수입산 냉동돈육의 시장출하가 늘어

나면서 돈육가격의 강세추세를 저지하는 혼란스러운 장세를 나타내며 강보합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3년 4월의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지육단가는 2,550원대를 상회하며 8개월간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가격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